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ri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을 틈타 백신과 연관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백신 설문조사 사기 유행, 이민자 저소득층 피해 속출

코로나 및 경기부양수표 사기사건 신고 40만건 이상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문하지도 않은 아마존 상품 배달 변경 문자, 경품추첨 당첨 문자, 백신 설문조사 및 무료 상품 증정 등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몬타나 지부

는 지난 3월 24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인터넷 기자회견에서 “사기꾼들은 최신 뉴스 화제거리를 소재로 사기를 저지른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소재로 한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 하워드 FTC북서부지역사무소 국장은 “코로나 및 경기부양수표 사기 신고가 40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경고했다. 사기 사례 중 3분의 2는 개인정보 유출이며, 소비자 피해액은 3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 관련 사기는 백신 설문조사 사기다. 하워드 국장은 “예를 들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면 선물 ▶▶4면으로 계속

자녀를 둔 부모가 꼭 챙겨 들어야 할 강의 2개

하버드 조세핀김 교수, 정신과 전문의 강철민 박사 강연
2021 온라인 교사연수회 및 학부모 강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재 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남 일)는 4월 24일 토요일 온라인 교사 연수회에서 실시되는 특별 강연들을 일반에게 선착순으로 공개한다. ‘나라사랑-우리사랑’ 제2강 ‘자녀사랑’ 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미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는 필수적이지만 평소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연들이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강철민 박사가 ‘애착 과정, 오른쪽 뇌와 애착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맡는다. 이어 하버드 교육대학원 조세핀 김 교수가 ‘한국 이민자 부모와 1.5세대, 2세대 자녀들의 문화 차이와 이해’ 의 주제로 강연한다.

협의회는 2세대와 부모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해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PREMIER REALTY GROUP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영진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EileenBostonRE@gmail.com



2021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오은희 평통간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회장 한선우)가 2021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

재외동포 청소년 및 현지 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과북 최고의 순간>, <평화와 통일 미래>, <DMZ와 평화>다. 참가자는 선택한 하나의 주제로 그림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는 4월 15일 (목)부터 5월 19일 (수)까지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총 9 작품을 선별 수상한다. 협의회장상 1명에게 상금 \$300, 협의회 우수상 3명에게 상금 각 \$200, 협의회 장려상 5명에게는 상금 각 \$100을 상장함께 전달된다. 시상식은 5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보스톤협의회 예선 1등(협의회장

상1명)은 전세계 43개 협의회 우승자들과 함께 하는 종합 결선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월 30일에 개최되는 종합결선대회 시상식에서는 결선 수상자 11명(대상 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에게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선우 회장은 "작년 미주지역 20개 협의회가 출품하는 본선 대회에서 보스톤 협의회 출품작이 우수상을 수상했던 만큼 올해도 기대가 크고 보스톤 지역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하며 이번 그림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자세한 문의는 bostonnuac2020@gmail.com 617-780-6521 신영 준비위원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정치인턴 장학생 공모 18일 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시민협회가 뉴잉글랜드 지역 차세대 한인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정치인턴" 을 공모한다.

관심있는 차세대들은 4월 18일 까지 추천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해 시민협회에 지원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정보는 newengland-kacl@gmail.com에 문의할 수 있다.

선발된 인턴은 보스톤 시장선거에 도전하는 미셸 우시의원, 마리아 로빈슨, 태키 찬 주하원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인턴직을 수행한다.

한편 선발된 대학생 인턴에게는 시민협회가 \$2,000, 그리고 고등학생 \$500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인턴십 시작과 종료일은 시의원과

주 하원의원 사무실과 논의하여 각 인턴의 개인상황에 따라 정한다. 인턴십 종료후에 각 인턴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인턴십 에세이가 시민협회 저널에 게재된다.

문의는 허훈 시민협회 부회장 (413-204-9569), 소피 박 사무총장 (newenglandkacl@gmail.com) 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자녀를 둔 부모가 꼭 챙겨 들어야 할 강의 2개

▶▶ 1면에 이어서 자녀교육과 2세 교육을 한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히 친밀하면서도 중요한 주제' 로 이번 강연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 교육과 가족의 건강이 강연회의 목적이므로 뉴잉글랜드 지역 뿐 아니라 타 지역 한국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도 비록 제한된 숫자이지만 개방하여 등록비 없이 연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온라인 교사 연수회-강연회 참가를 원하는 교사 및 학부모는 17일 토요일까지 구글폼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7일 자정까지 참가신청

을 마치는 경우 줌링크와 비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사의 경우는 참가비 \$15을 학교 별로 협의회에 보내면 되고 학부모 및 일반인의 경우 참가비는 무료다.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의 다음 행사는 5월 2일 '나라사랑 우리사랑' 특강 시리즈의 제 3강인 '독도' 관련 특별강연이 준비된다. 이어 5월 8일에는 2021년도 뉴잉글랜드지역 글짓기대회, 예쁜 손글씨 대회, 나의꿈 말하기-NE지역 대표 선발 대회가 이어진다. 참가 문의는 회원학교 교장 또는 NE협의회로 하면 되며, '나라사랑-우리사랑' 특

강 시리즈 마지막으로 제 4강은 '미주 한인 이민사 및 독립운동' 으로 6월 26일에 정규식 교수의 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 온라인 교사연수회 참가신청(교사 및 학교 운영, 이사회): 17일 등록 마감
<https://foms.gle/x5fVc4wVGn-tyFe2FA>

• 온라인 교사연수회 참가신청(학부모 및 한인 단체 및 기타): 17일 등록 마감
<https://foms.gle/MPU4qu48SRK8iNHj9>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사업체들 이번달 실업보험료 수수료 폭탄 맞아

풀타임 직원 1명당 1천불 넘게 부담해야, 의원들도 놀라 상원의장 보험료 폭등에 대처하겠다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사업체들은 이번 달부터 풀타임 직원 1명당 1천불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폭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지금까지 의회의 입법으로 팬데믹 실업의 폭증으로 유발된 실업보험료 폭등을 60%까지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의회는 지불능력 추가요금(solveny surcharge)은 동결하지 않아 이 같은 실업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지불능력 추가요금은 각회사의 해고내역과 연관되어 부과되는 주요 실업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팬데믹) 보험혜택에 지불한 자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다.

베이커 행정부는 지불능력 요금추

산은 주정부가 바꿀 수 없는 주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 케어스법안(CARES Act)은 직원을 해고한 특정 사업체의 실업보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팬데믹 관련 실업 급여혜택을 지불능력요금을 통해서 지불하도록 했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의 경우 직원당 1만 5천불까지 0.58%를 지급하던 것과 달리 2021년의 경우 최대 9.23%까지 부과하게 된다. 직원당 1천불이 넘는 지불능력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스톤상공회의소를 비롯한 20여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9일 주 및 연방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매사추

세츠 추가 연방으로부터 받는 코로나 지원자금으로 이 부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정부의 명령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캐런 스피카 상원의장은 이 같은 서한에 “상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보험료수수료 폭탄에 놀랐다” 고 밝혔다. “실업보험료 법안을 제정했던 당시에는 아무도 지불능력요금과 수수료 폭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고 밝혔다.

상원의장은 연방 부양자금의 사용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세계한상대회 2022년에는 울산서 개최

4.12, 제38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2022년도 대회 개최지 등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4월 12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18개국 40명이 참가한 제38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를 울산으로 확정했다.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들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군산시)의 유치계획발표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한 제반 사항 점검 및 사전 안전자료로 배포된 현장실사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내년도 개최지를 결정했다.

또한 다수 운영위원의 참가가 용이하고 현지 단체와 협력 가능한 중국 북경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가 국가급 비즈니스 컨벤션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많은 한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향후에는 해외에서도 대회가 개최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네트워크 행사로 금년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대전광역시에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대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 리더 &한상포럼, ▲한상CEO 네트워킹, ▲기업IR,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등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독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 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존슨앤존슨의 급작스런 사용중단에 불구하고 매사추세츠 주 백신 접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14일 강조했다

베이커 주지사, 존슨앤존슨 백신 중단에 큰 영향 없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16세 이상 일반인들 접종 가능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존슨앤존슨의 급작스런 사용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 주 백신 접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14일 강조했다.

주지사는 하인즈켄벤션 센터 대형 접종장소에서 “J&J 백신 공급은 현재 매사추세츠 주내에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추후 백신 예약에 아주 작은 불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백신 접종 중단은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극히 일부인 6명의 접종자들에게서 혈액응고 현상이 발

생함에 따라 CDC의 일시 중단 권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약 7백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았다.

주지사는 이번주 1만1천6백 명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인도 받았으며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3만4천을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존슨앤존슨은 전체 매사추세츠 백신 공급의 3% 정도만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연방 정부는 수일내에 백신 배급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며 “다른 지사가 있을 때까지 매사추세츠 주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은 중단한다”고 말했다.

존슨앤 존슨 백신 예약을 한 주민들은 백신 접종처에 문의해야 하며 접종 후 심한 복통이나 두통 또는 심한 다리 통증이 있을 경우 혈액응고 현상을 의심해야 한다.

16세 이상의 일반인 접종은 다음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시작되므로 사전 예약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접종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 접종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

4월 14일 현재 매사추세츠주 첫 번째 백신 접종자는 2백8만4,282명이며 두 번째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1백87만5,316명이다.

hsb@bostonkorea.com

코로나 백신 설문조사 사기 유행

▶▶1면에 이어서

을 준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상품을 받으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빼간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백신 관련 설문조사 및 무료 상품 증정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사기이므로 조심해야 한다”며 “진짜 설문조사기관은 상품 증정을 이유로 신용카드 번호나 은행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난민들을 노리는 사기도 늘고 있다. 사기꾼들은 크레이그리스트 등 인터넷 장터란에 집주인을 가장해서 주택을 싼값에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세입자에게 2개월 치 세류리티 디포지트를 받아낸다. 세입자들은 나중에 그런 주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몬타나 법률서비스협회의 베스 헤이즈 소비자보호 담당 변호사는 “이미 가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일수록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폭력 피해자, 노인, 퇴역군인, 아메리카 원주민, 장애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사기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사기꾼들은 특히 이들이 경기부양수표 등 지원금을 받을 때를 노린다”고 말했다.

FTC 소비자 비즈니스 교육부의 앤드류 존슨 부장은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사기에 더 많이 노출되고, FTC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존슨 부장은 “하지만 사기 사례를 접할 때마다 FTC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 사례가 접수돼야 새로운 사기 수법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사례 신고는 www.ftc.gov로 하면 된다.

이기사는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C)의 기사를 인용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함께 이겨요! 함께 지켜요!

지금 모두가 힘내 우리를 지켜야 할 시간
보스톤 정관장이 함께 합니다!

면역기능 강화
예방적 관리를 위한 면역 기능 강화

피로 회복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건강 기능의 균형 유지

기초 체력 향상
지구력과 인내력을 조화시켜 기초 체력의 기준을 향상

신진대사 강화
자연스럽게 체온을 활성화하여 신진대사 기능과 체력 전환이 순조롭게 작동

혈류 개선 효과
건강한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면서 신체의 각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위한 혈류 개선

홍삼정 240g 1개 구매시 정관장 홍삼정 30g 증정

면역력으로 이겨냅니다!
정관장 추가 증정 및 할인 프로모션
행사기간: ~8월 16일까지

에브리타임 2개 구입시 10포 증정

신제품 홍삼라떼 15% 할인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11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KBS MBC SBS EBS tvN net Olive OCN

뉴햄프셔, 타주 거주자 백신 접종 예약 허용

4월 19일부터 뉴잉글랜드서 유일하게 타주 거주자 백신 허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뉴햄프셔주는 4월 19일부터 타주 거주자들에게도 백신 접종 예약을 허용할 것이라고 크리스 서누 주지사는 8일 밝혔다.

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해 12시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심지어 10여개가 넘는 월그린 탭을 브라우저에 띄어놓고 예약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는 동반접종을 위해 시니어들을 찾아 나서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

모든 주의 백신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뉴햄프셔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서누뉴 뉴햄프셔 주지사는 “앞으로 많은 백신이 뉴햄프셔 공급될 것이며 여전히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같은 충분한 공급물량을 바탕으로 뉴햄프셔는 뉴잉글랜드에서는 유일하게 4월 19일부터 타주 거주자들에게 백신예약을 허용한다.

서누뉴 주지사는 5월 31일 전에 약 25만 도스의 예약을 허용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1백 36만 뉴햄프셔 주민 중 첫번째 백신을 접종한 수는 50만여명이 넘으며 두번 접종을 완료한 수도 26만 5천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19일부터는 모든 성인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4월 19일부터 16세 이상의 성인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허용하게 된다.

뉴햄프셔는 1차 백신 접종 퍼센트에 있어서는 미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커네티컷과 메인 그리고 매사추세츠도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미국내 절반의 지역은 백신의 자격을 주 경계선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다. 19개 주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으며 6개 주는 반드시 주내 거주자에게만 백신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거주지 제한은 연방정부가 해당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백신을 배정하기 때문이

다. 뉴햄프셔는 이전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거주민의 자격을 제한했었다. 대부분의 주들은 주 경계선 안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허용했었다. 그러나 서누뉴 주지사는 타주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주에 돌아가서 접종을 받고 올 것을 주문했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었다.

백신의 여유분이 예상되자 서누뉴 주지사는 방향을 바꿨다. 이번 주 자격제한을 풀게 된 것은 뉴햄프셔 주민들의 1차 접종을 하고도 많은 백신 분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뉴햄프셔 주민들의 백신 접종 기피가 이처럼 많은 용량이 남아있는 것에 얼만큼 기여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도들과 공화당원들은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백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런 백신 기피는 시골 지역의 주민들일수록 비율이 높다. 뉴햄프셔 인구의 90%는 백인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을 시골에



크리스 서누뉴 뉴햄프셔 주지사

거주하고 있다. 미시시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기 때문에 수십만 백신 용량이 남아 있다.

서누뉴 주지사는 “백신 접종 비율이 미국내 선두를 달리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뉴햄프셔 주민들이 이미 접종을 받았고 주민들 대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집단면역으로 잘 향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고 밝혔다. 뉴햄프셔 성인 인구의 60%는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했다고 뉴햄프셔

주 대변인은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주 경계선을 허물어 백신 예약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누구나 주민 여부에 상관없이 접종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이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 이라고 개브리엘 배스케스 텡스 매디컬 감염병학자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기획 및 사회: 김택수

- 4월 3일 개요: 미국에서 활동한 한인 작곡가들*
 - 10일 나효신 (Hyo-Shin Na)
 - 17일 이규림 (Kay Rhie)
 - 24일 Chihchun Chi-sun Lee & Michael Sidney Timpson
 - 5월 1일 얼 김 (Earl Kim) & 서영세 (Donald Sur)*
- *김택수 진행

뉴 뮤직 심포지엄 - 시즌 2

“개척자들: 미국에서 활동한 한국계 작곡가 1세대들의 음악과 삶”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활동했던 이전 세대의 작곡가들과 그들의 음악,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계 작곡가들을 알아봅니다

토요일 오후 7시 (미 동부시간)

Zoom과 예술협회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실시간 방송
Zoom 링크는 www.kcsboston.org 에서 신청



후원: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2세들의 목소리와 마음으로 그려낸 번역시 낭송 대회 개최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번역시낭송동영상 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는 지난 토요일 중급 및 고급과정 학급들을 대상으로 제 1회 '나는 번역시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매년 봄에 개최하는 한영 번역대회를 한글 및 영문시를 번역하고 낭송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제출하는 대회로 변경한 행사였다.



<p>Nothing Gold Can Stay By: Robert Frost</p> <p>Nature's first green is gold, Her hardest hue to hold. Her early leaf's a flower, But only so an hour. Then leaf subsides to leaf. So Eden sank to grief, So dawn goes down to day. Nothing gold can stay.</p>	<p>금빛은 오래 가지 않네</p> <p>자연의 첫 푸름은 금빛 가장 불들어 놓기 어려운 빛 일찍 핀 이파리는 한 송이 꽃 그러나 잠시만 머무는 빛 이파리는 또 다른 잎으로 변하고 에덴이 슬픔에 잠기듯 새벽은 아쉽게 흘러나네 금빛은 오래 가지 않네</p>	
---	--	--

학생들의 동영상은 기대 이상이 었다는 것이 심사를 맡은 교사들의 이구동성이다. 학생들은 작품 동영상에 배경 음악을 직접 연주하여 넣 었다. 삽화를 그려 넣고 배경을 디자인한 학생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2세들이 시인 윤 동주, 이해인의 시는 물론 주옥과 같은 다양한 시를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낭송하는 것도 대견하지만 시 낭송 끝자락에서는 낭송한 시 가 주는 느낌과 의미 및 흐름을 나 름대로 분석하여 전하고자 하는 시 도 또한 훌륭하고 신선했다” 고 입을 모았다.

제 1회 대회 고급부문 대상은 고 급과정 금강반의 최준은 학생이 Robert Frost시인의 <금빛은 오래 가지 않네>로 차지했다. 중급부문 대상은 중급3과정 한국반 송연 학생이 나태주 시인의 <다시 중학생 에게>를 낭송하여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부문별로는 김수지-송윤(고급3)

팀이 (백두산), 노진-최서경(고급 2) 팀이 <Where the sidewalk ends>, 김다현-조윤서(고급1) 팀이 <별을 보며>로 1위를 차지했고 중 급부문은 한예린(중급3) 학생이 <스승>, 최진욱(중급2) 학생이 <작은 기쁨>, 오유진-이다영(중급1) 팀이 <꽃씨 안이 궁금해>를 낭송하여 1 위를 차지했다. 수상자 명단과 발표 시 제목 등은 곧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질 예정이다.

남일 교장은 “어려운 교육환경 에서도 2세들이 이처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 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2세들의 맑 고 밝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

남 교장은 “이번 제 1회 대회에 서 부문대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이 번 주 교사회 전체회의 때 공유하여 함께 감동을 나눌 계획이고 특별히 ‘스승’ 으로 작품을 낸 중급3과정

한국반 한예린 학생의 작품은 오는 4월 24일에 개최되는 2021년도 뉴잉 글랜드지역 교사연수회 때 ‘선생 남께 드리는 헌정시’ 로 선택되어 발표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유치반부터 고급과정 및 이중언 어학과 성인반으로 구성되어 있 는 지역 최대 교모의 뉴잉글랜드한 국학교는 5월 1일 ‘아름다운 우리 말, 우리글 자랑대회’ 를 개최하며 오는 6월 5일에 종강식을 갖는다. 2021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은 5월 31 일부터 시작된다.

학교는 2세들을 위한 한글교육, 음악 및 미술 등 문화교육 부문의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가을학기 등 록문의 및 교사지원은 전화 (508) 523-5389 또 는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 (www.ksneusa.org) 를 통해 신청가 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차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B, Woburn, MA 01801

미국 내 한국 작곡가들의 활동과 작품을 살펴보는 뉴뮤직 심포지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3년 설립 이후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인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폭 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의 뉴뮤직 심포지엄 세 번째 시리즈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첫 번째 강의에서 작곡가 김택수 교수(UC 샌디에이고)는 1890년대에 선교사들이 찬송가를 보급하면서 한국에 서양음악이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1990년대까지 한인 작곡가들의 계보를 세대별로 정리하여 소개했으며,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또는 한국계 작곡가들과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개괄했다.

일제시대에 활동한 초기 연주가 겸 작곡가들(안익태, 흥남파, 현제명, 채동선), 미국에 유학하여 한국인 최초로 음악석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작곡가협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김세형, 월북 작곡가 김순남, 한국 전쟁 이후인 1950년대에 해외로 나가 활동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은 최초의 한인 작곡가인 윤이상,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주요 활동을 한 열 김, 백남준, 강석희, 황병기, 도널드 서 등의 생애와 작품이 소개되었다.

두 번째 강의는 대한민국 작곡상을 두 번(서양음악 부문, 국악 부문 각 1회)이나 수상한 바 있는 작곡가 나효신 씨의 강의였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롬 재단, 쿠세비츠키 재단, 젤러바흐 패밀리 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로부터 작품을 위촉받았던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해 동안 활동해 왔으며 동서양의 악기와 음악 요소를 모두 사용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인정받아왔다.

이 날 소개한 작품 중 문학 작품(시)에서



(좌로부터) 도널드 서, 마이클 시드니 팀슨, 열 김, 이규림(Kay Rhie), 치천리

영감을 얻은 곡이 6곡이나 되었는데, 나효신 씨는 “시를 읽을 때면 갑자기 음악이 들리곤 한다. 어떤 때는 스토리, 하나의 문장,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비주얼 아트나 그림, 조각이 될 수도 있으며, 자연이 영감을 주기도 한다. 시는 나에게 음악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좋은 자극제이다” 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 17일(토)에는 현재 UCLA 대학교 작곡과 교수인 이규림(Kay Rhie) 씨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서울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성장한 그녀는 UCLA 와 코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문학예술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의 찰스 아이브스 펠로우십,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연구소의 뮤직 펠로우십을 받았다.

영화음악, 재즈, 유라피언 아방가르드 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녀의 음악은 “격렬함과 과묵함, 친밀감과 명료함이 공존한다” 는 평을 받았으며 오하이 뮤직 페스티벌, 런던 페스티벌 오브 아메리칸 뮤직, 탱글우드 뮤직 센터, 아스펜 뮤직 페

스티벌, 밴프 아트 센터, 쉴 베이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되었다.

4월 24일에는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작곡가인 마이클 팀슨과 치천리 부부의 강의를 이어진다. 마이클 팀슨은 2009년에 이화여대 작곡과 교수로 임용된 후, ‘손마익’ 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이자 종족음악학자이고, 대만계 미국인 작곡가인 치천리는 2015 구겐하임 펠로우십 수상자이자 제 1회 브란덴부르크 국제 작곡 콩쿠르(독일)의 우승자이다.

마지막 날인 5월 1일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작곡가 열 김(1920-1998)과 역시 보스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였던 도널드 서(1935-1999)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들의 작품을 사랑하고 많이 연주했던 보스톤의 음악인들이 특별히 패넬로 함께 할 예정이다.

모든 강의는 줌(Zoom)과 페이스북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줌에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한미예술협회 웹사이트

(<http://www.kcsboston.org>)에서 간단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녹화된 동영상은 며칠 후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영어로 진행되며 강연자 소개, 강의, 질문/답변 시간으로 이어진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다.

뉴뮤직 심포지엄 시즌2

〈개척자들: 미국에서 활동한 한국계 작곡가 세대들의 음악과 삶〉

- 4월 17일: 이규림(Kay Rhie)
- 4월 24일: 치천리(Chihchun Chi-sun Lee) & 마이클 시드니 팀슨(Michael Sidney Timpson)
- 5월 1일: 열 김(Earl Kim) & 도널드 서(Donald Sur)

큐레이터 및 사회: 김택수(5/1 강의도 진행)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미 동부시간)
주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http://www.kcsboston.org>)

후원: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경찰 노조위원장 반복된 아동성폭행 범죄 수십년간 은닉

백인 경찰의 각종 성폭행, 가정폭력 범죄 조직적으로 은닉 경찰복 입은 범죄자 되려 간부로 승진, 반복해 아동들 성폭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경찰은 경찰내 고위직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견책하지 않고 외부에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이 경찰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승진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보스톤 경찰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패트릭 로즈는 아동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며 체포됐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7-12세 사이의 5명이 더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지만 보스톤 경찰에는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보스톤글로브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로즈가 1995년 12세 남아아이를 성폭행 했다는 고소사건을 내사한 결과 아동성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로즈는 고소가 취하된 이후 계속 경찰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순찰경찰노조 위원장직까지 올랐다.

보스톤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스톤 경찰은 로즈 수사관련 자료를 감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참혹한 피해를 더 많이 감수해야 했다. 지난해 여름 딸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던 아버지는 1995년 12세의 나이로 로즈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

자였다. 부녀가 모두 같은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방관과 목인이 경찰복을 입은 범죄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12세였던 남아 아동은 로즈의 협박이 무서워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부인하고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글로브에 따르면 이는 아동 피해자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경찰의 내사는 계속 진행됐으며 유죄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후 보스톤 경찰은 어떤 견책이 내려졌는지 함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내사 중에 로즈가 피해아동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보스톤글로브는 보도했다.

결국 로즈는 보스톤시의 1500 순찰경찰을 대표하는 노조 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현재 서퍽고등법원은 로즈를 33건에 달하는 7세부터 16세 아동 및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감금했으며 20만불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로즈의 변호사 윌리엄 키피에 따르면 로즈는 1995년부터 자신이 결

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1995년 아동성폭행 사건이 조사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톤 경찰은 성폭행당한 14세 소녀의 신고를 받은 후 로즈로 하여금 그 소녀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도록 했다. 2006년에는 아동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다른 경찰관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엠마뉴엘 칼리지의 교수이자 전 보스톤경찰 간부였던 탐 놀란은 “경찰제도의 시스템적 고장”이라고 지적하고 “보스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자가 결코 경찰 간부직에 머물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최초의 경찰인 보스톤 경찰은 계속해 간부들의 비위를 감추고 있다. 글로브의 로즈의 내사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달 주정부 공공기록 감독관의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틴 윌시 시장은 공개를 거부했다. 보스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밝혀져 경찰서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난 데니스 화이트를 비롯 경찰들의 비위를 감춰왔다.

신임 흑인 여성 시장 김 제니는 “오랫동안 아동성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이 수년간 경찰 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은 충격적”



Calls mount for Boston's acting mayor to release 1995 molestation investigation into former police union president

The Boston City Council is demanding a thorough accounting of how the case was handled when allegations were initially raised 25 years ago. 패트릭 로즈 전 보스톤 경찰 노조위원장, 그는 경찰복 입은 범죄인이었다

이라고 말하고 “이 같은 범죄행위는 결코 묵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퍽 지검 레이첼 롤린스 지검장은 성명을 통해 보스톤 경찰이 적절하게 로즈를 견책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접근을 금지시키지 않은 사실에 대해 “극히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보스톤 경찰 시스템 문제가 어떻게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흑인이며 보스톤 경찰 부서장으로 은퇴한 윌리 브래들리씨는 보스톤 경찰은 백인 경찰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감춰왔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매사소이트, 엔디캣, 그리고 코커리 칼리지에서 교수 및 강사로 일하고 있는 브래들리 교수는 “경찰의 이 같은 간부들의 비위를 밝히

기를 거부하는 것은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개인적 의견으로 이 같은 은닉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66세의 로즈는 브루클라인 태생으로 주방위군에서 복무했고 1994년 6월 22일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1년 후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21년간 꾸준히 경찰복을 입고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왔으며 1994년 선거에서 80% 지지를 받고 노조위원장직을 차지했다.

노조위원장으로 그는 경찰의 바디카메라착용 의무화 반대 운동을 이끌었다. 2018년 은퇴해서 연 \$78000의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출두할 때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을 수갑찬 손으로 가렸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요가송의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YOGA SONG HAYEON

뱃살 2주만에 무조건 빠지는 딱 3분! 운동

“전 그리 많이 먹는 것 같지 않는데 뭐만 좀 먹었다 하면 자꾸 배가 나와요.”

“먹고 싶은 거 싹껏 먹고도 배 안 나오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만인의 고민이라 할 수 있는 ‘뱃살’ ‘똥배’ 라는 녀석은 아주 쉽게 나오고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뺄 수 있는 놈입니다.

대신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매일 단3분이라도 꼭 복근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복부에 긴장을 주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숨겨진(?) 복근을 발달시켜 아랫배가 나오거나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과식 혹은 폭식을 예방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Peaches/악마의 3분 복부&힙운동 찾아 신나는 음악과 따라하다보면 지루할 틈없이 3분이 휘리릭~ 지나갈 거예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YOGA SONG-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울 복근운동은 변형된 Seated Crunch입니다.

STEP 1. 먼저 엉덩이와 손바닥으로 바닥에 대고 천천히 두발을 들어주세요

STEP 2. 한발만 앞으로 차면서 다리를 길게 뻗었다가 반대발도 같은 방법으로 뻗어주세요

STEP 3. 이번엔 상체를 좀더 뒤로 보내며 두다리를 동시에 뻗어주세요

POINT! 호흡을 강하게 내뿜으면서, 배꼽을 등쪽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어야 허리를 보호하며 복근운동 할 수 있어요.



라이브 ZOOM 무료 체험 온라인 클래스
현재 매주 3회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가이드에 따라 집에서든 요가와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꼭 놓치지 마세요!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초보자도 대환영입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버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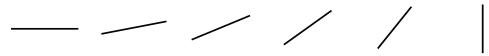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바디프랜드 2020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2017년 이래 4년째 세계 시장 점유율 정상 지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바디프랜드가 연이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안마의자 연구개발에 약 66억원을 투자하여 한국 기업으로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시장을 평정했을 뿐 아니라 세계 안마의자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 '프rost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은 24일 바디프랜드가 2020년 상반기 매출액 기준 세계 안마의자 시장에서 7.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에 의하면 2017년 처음 세계 1위를 차지한 이후 4년째 세계 시장의 정상을 지키고 있다. 안마의자 종주국으로 불리는 일본 기업 파나소닉과 이나 다패밀리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바디프랜드는 성능과 디자인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안마의자로 세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바디

프랜드만의 기술인 '수면마사지 프로그램', '멘탈마사지' 특허는 물론, 목디스크와 협착증 치료하기 위해 견인하는 특허를 제품에 적용한 조합형 의료기기 '뱀뱀메디컬'을 출시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분야에서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특허 기술을 개발 중이다. 특히 센서와 IoT(사물인터넷)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여기서 추출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기술도 확보했다. 바디프랜드는 각 분야 전문의와 의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메디컬 R&D센터'를 비롯해 기술, 디자인까지 아우른 3대 융합연구조직을 운영 중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기술연구소, 디자인연구소, 메디컬 R&D센터 등 3대 융합연구조직을 운영하

며 각종 마사지,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 기술을 출원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건강수명 10년 연장을 이루기 위한 헬스케어 연구 개발에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디프랜드가 설립된 2007년 당시만 해도 안마의자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일본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동경도 강해 파나소닉, 이나 다패밀리, 후지의료기 등 일본 기업이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주도했다. 당시 일본 기업의 안마의자는 콘셉트가 '실버 제품'이어서 제품마다 디자인과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장 규모가 작아 안마의자 업계가 추정하는 2007년 안마의자 시장은 200억원 안팎에 불과했다. 2007년 바디프랜드가 등장하면서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다.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 하면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7년 미국 진출과, 2019년 프랑스 파리의 유명 백화점



이 위치한 오스만거리에 '파리 플래그십스토어'를 개관하고 유럽의 심장부인 파리에도 진출했다. 한편 미국 동부지역에는 미국 최대 규모 안마의자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

는 하이트론스 www.hitrons.com 201-941-0094에서 판매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반도체를 들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도체 품귀현상, 컴퓨터·전자업계로도 확산

일부 반도체 가격 1달러→32달러 폭등... 소비자 가격도 불안, 사재기 의심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타한 반도체 수급 대란이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컴퓨터와 전자제품 제조업체도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요 예측 실패 때문에 벌어진 시장의 혼란이 연쇄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 HP는 반도체 품귀 현상 탓에 교육용 컴퓨터 수요를 맞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이 부족한 학군에 저렴

하게 교육용 컴퓨터를 공급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 HP가 밝힌 애로사항이었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서 시작한 시장의 혼란은 전체 반도체 가격을 자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부품 거래업체인 소스엔진에 따르면 예전에 1달러(한화 약 1천116원)에 거래됐던 특정 반도체의 가격이 32달러(약 3만5천700원)로 뛰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3센트(약 33원)에 거래되던 콘덴서가 시장에서 사라져 20달러(약 2만2천 원) 짜리 모듈 가격이 10배로 치솟은 일도 있었다.

일부에선 중간 유통업체들의 반도체 사재기 현상 때문에 가격이 급

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업체가 반도체를 주문한 뒤 공급받는 데까지 3개월이 소요됐지만, 현재는 이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아마존과 보잉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업체가 이 같은 반도체 품귀 현상의 영향권에 있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체 중에서는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생산 활동을 중단한 업체도 적지 않다.

웹캠을 생산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와이즈 랩스는 현재 재고가 없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를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공지했다.

미 신규 실업수당 58만건... 코로나사태 후 최저

전주보다 19만건 급감...

전망치보다 10만건 이상 낮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세미국 노동부는 지난주(4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7만6천건으로 집계됐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주보다 19만3천건 급감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2주 연속 증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0만건을 크게 밑돌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7만5천건 급감했고, 오하이오·버지니아·켄터키주에서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주 전 기준(3월 28일~4월 3일)으로 집계됐다.

이날 지표는 각종 영업제한 완화와 백신 보급 확대에 힘입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용 시장이 해빙기를 맞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석했다.

구직사이트 인디드의 이코노미스트 앤 엘리자베스 콘켈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고용 시장이 회복세에 올라섰다"며 "고용 회복은 100% 공중보건 상황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회복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전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22만건 수준이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작년 2월보다 84만개 모자란 상태라고 WSJ은 지적했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령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미, 안센 백신 중단 연장... '엎친 데 덮친' 세계 백신 접종

'대체 확보' · '중단' · '그래도 접종'... 국가별로 대응 상이, 아스트라제네카 사태에 이어 백신 접종 노력 '타격'

〔서울·브뤼셀·파리=연합뉴스〕 안수 기자 김정은 현해란 특파원 =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가 14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J&J)의 안센 백신의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게 크게 작용했다.

미국이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다른 나라에서도 안센 백신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혈전 생성 유발 보고가 속출하며 접종 대상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조치가 이어진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난 것이다.

더군다나 안센 백신은 다른 제품

과 달리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장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2차 접종이나 추적 관찰이 어려운 노숙자나 이민자 등 취약 계층에 맞춤형 백신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안센 백신 접종을 계획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등은 안센 백신을 확보했지만,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더 나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는 백신 확보와 접종이 늦어지면서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었다. 안센 백신이 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어긋난 셈이다.

이탈리아는 13일 18만회분을 확보했지만, 유럽의약품청(EMA) 등 보

건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장관은 "미국의 사용 중단 결정은 예방 조치다.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라며 "안센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스페인도 안센 백신 14만5천회분을 확보했지만, EMA 지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접종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만1천회분을 받은 스웨덴도 일시 중지 계획을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존슨앤드존슨 측 요청에 따라 안센 백신 접종 시작을 16일 이후로 연기했다. 벨기에에는 지난 12일 3만6천회분의 안센 백신 첫 배송분을 받았으며 6만2천400회분을 이달 중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폴란드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2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다음 주 중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에 착수할 방침이다.

헝가리 역시 확보한 백신을 접종기로 했다.

지난달 안센 백신 사용을 승인한 EMA는 아직 미국과 달리 안센 백신 접종을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다음 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안센 백신을 700만회 접종해서 6건의 혈전 생성 사례가 보고됐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유럽에서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유발 가능성을 지적했고, 안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제조 공정과 유사하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안센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화이자 백신을 확보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 화이자 백신 5천만회분을 당초 예정보다 이른 2분기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안센 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원래 올해 4분기로 예상했던 물량 배송이 앞당겨진 것이다.

이탈리아도 오는 6월까지 화이자 백신 2천500만회분을 받기로 한 계약에 추가로 700만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14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미국 56만명을 포함해 300만명에 달한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속히 확산해 백신 접종을 통한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aaayss@yna.co.kr
younglee@yna.co.kr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V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오염수 문제 IAEA로 공 넘어가나...일본 정부 "환영한다"

일본 정부 IAEA에 전문가 파견 요청...한국, IAEA에 참여 요청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한 논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에 일단 맡겨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 및 제소를 검토 하라고 지시하는 등 법적인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IAEA의 조사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5일 보도된 교도통신이나 NHK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할 의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이르면 올해 여름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전달 요청했고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IAEA의 조사단 파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 정부는 IAEA 차원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IAEA에 한국 측 전문가의 검증단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IAEA 차원에서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IAEA

도 분명히 공감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IAEA 조사단에 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가토 관방장관은 IAEA 조사단에 한국 등 인접 국가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구상에 대해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제3자의 입장에서 다핵종(多核種)제거설비(ALPS)로 거른 오염수의 취급 방식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 사안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없애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IAEA의 조사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주안점은 상당히 달라 보인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IAEA의 조사를 활용해 이를 제지하겠다는 계획인 반면, 일본은 IAEA 조사를 통해 해양 방류 계획을 공인받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방류 계획을 추진할 경우 IAEA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



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후 현지시간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IAEA의 점검 과정에서

일본이 추진하는 계획이나 도쿄전력의 대응이 지닌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2년 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구상이 일본 정부의 뜻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오염수 마셔도 된다더니...일 "안전 증명될 리 없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는 일본 각료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일본 정부는 마시는 것이 안전성 증명과는 별개라는 뜻을 표명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의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는 아소 다로(麻

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발언에 대해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그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반응한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콩 매

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도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나는 물음에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뜯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아소 부총리의 발언 취지에 관해 해명했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APR. 16th - APR. 22nd, 2021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0.79 LB	Oriental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99 LB	Kabocha 단호박 \$0.99 LB	Stem Tomato 스템 토마토 \$0.99 LB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Washington Fuji Apple 워싱턴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1.49 LB	Pineapple 파인애플 2\$5 EA./FOR	ROSHNI Peanut ROSHNI 땅콩 56OZ. \$4.99 PKG.	Packed Persian Cucumber 1LB 팩 페르시아인 오이 \$1.99 PKG.	Ataulfo Mango 아틀포 망고 \$12.99 BOX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8.99	Fresh Sliced C/T Pork Butt Steak 소금구이용 생 돼지목살 LB \$6.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생 닭 사태 LB \$1.99	Frozen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냉동 돼지 불고기 LB \$5.99
Boneless Smoked Duck 훈제오리 (반마리) HALF LB \$14.99	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i 양념 소불고기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Head-on Shrimp 냉동 머리새우 30-40'S LB \$4.99	TONGTONGBAY Frozen Unagi Kabayaki 통통배 냉동 우나기 6 OZ./PKG. \$7.99
SUHYUP Frozen Cleaned Squid 수협 냉동 오징어 12.34 OZ./PKG. \$6.99	TONGTONGBAY Seasoned Dried Filefish 통통배 감칠맛 나는 맛있는 쥐포 12 OZ./PKG. \$8.99
SEVEN SEAS Dried Shrimp 세븐시즈 두절 건새우 5 OZ./PKG. \$6.99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6.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TAMAK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타마키 쌀 GOLD/15 LB \$26.99	H MART SMART CARD ONLY CHUNGJUNGONE Sunchang Doenjang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SOY BEAN PASTE/6.17 LB \$6.99
H MART SMART CARD ONLY HAO Seasoned Fried Bean Curd Pockets 해오름 누구나 유부초밥박사 WITH RICE SEASONING & SAUCE/12.6 OZ. \$2.99	H MART SMART CARD ONLY KADOYA Canned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캔) 56 FL.OZ. \$14.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2.99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 OZ. X 12 BOWLS/BOX \$12.99	HAO REUM Red Pepper Powder 해오름 태양초 붉은 고춧가루 \$12.99 COARSE 4 LB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벌몬트 카레 MILD/MED. HOT/HOT/8.11 OZ. 2\$5 EA./FOR	CHUNG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5.99
HAIOREUM Somen 해오름 막국수 KOREAN STYLE NOODLES 5 LB \$4.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OZ. X 6 EA./BOX \$9.99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리야게 치킨 12 OZ. \$5.99	OTTOGI Jumbo Mandu 오투기 왕/김치 왕만두 PORK&VEG./KIMCHI&PORK 1.5 LB \$8.99	GOOD FOOD FACTORY Comdogs/ Hotdogs 카킨아이 핫도그 POTATO CHEESE/MOZZARELLA/ CRISPY MOZZARELLA/14.1 OZ. \$5.99
ORION O! Karto Snack 오리온 오! 감자 CREAM&CHEESE/CHILI CHILI \$2.99 4.06 OZ.	BING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 FL.OZ. X 6 EA./PKG. \$5.99	SUNGBO CREAMY Cotton Filled Dishcloth 성보 순면 가득 행주 \$1.99 30CMX30CM 2PCS/PKG. 2.99	Premium Umbrella 고급 체크 단우산 \$3.99 PLAID EA. 5.99	LG Elastine Perfume Shampoo/Conditioner 엘라스틴 퍼퓸 러브미 샴푸/컨디셔너 \$6.99 600 mL EA. 8.99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종가집 TONGGA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JONGGA Kimchi offers taste you can trust!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OUR AGENTS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Micki Choi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주희정
617.831.6999
jessi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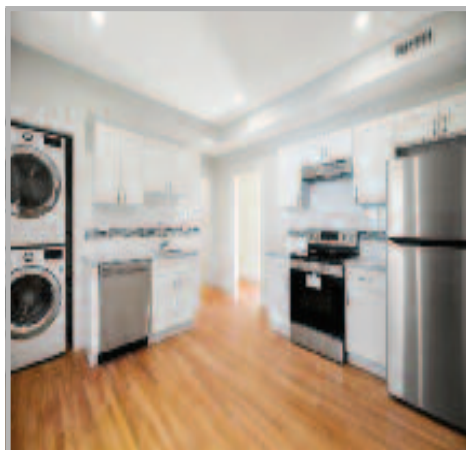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2 베드 아파트 렌트

자마이카 플렌
롱우드 1.3 마일
그린라인, 오렌지 라인
홀 푸드 0.2 마일
파킹 1

Asking 월 \$2,900(렌트)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넨트

Asking \$8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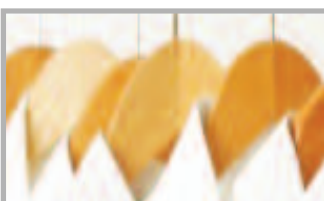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지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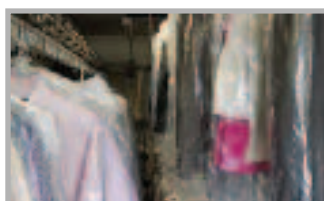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식당매매

높은 매상으로 수익보장, 팀워크 좋은 직원들로 구성 식당 무경험자도 쉽게 운영가능 K-food 인기로 향후 매출증가 기대

Asking \$280,000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력,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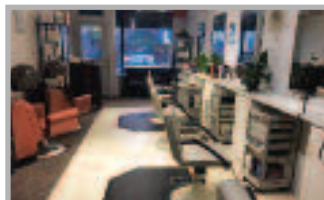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Price Reduced
급매 Asking \$40,000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지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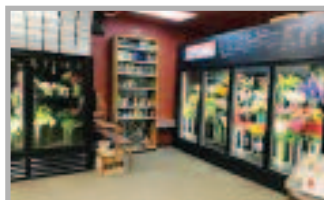
Asking \$320,000



● 브루크라인 인기 렌트

1 Bedroom APT. 콜리지 코너 지하철역 바로앞 BC, BU, 롱우드지역으로 출퇴근 용이 인근에 그로서리, 한국식당, 3월-5월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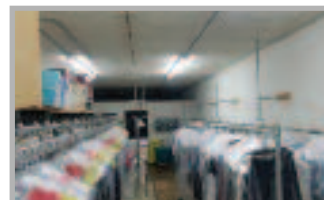
Asking 문의 바람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Price Reduced
Asking \$80,000

2021 Spring NAKS New England

온라인 교사 연수회

일시: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저녁 6:15(EDT)

장소: ZOOM MEETING

ID&PW는 신청 후 공유



강사: 조세핀 김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 이민자 부모와

1.5세, 2세 자녀들의 문화차이와 이해'



강사: 강철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애착교실: 오른쪽 뇌와 애착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지역 한국학교 교사 수강 신청: 학교를 통해 Google Form 신청

일반 수강 문의: 김소희 총무(haveand1008@gmail.com)

김성희 간사(lovelykids76@gmail.com)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협의회

후원



재외동포재단



주 보스턴 총영사관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 **코리아**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용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20년차 모기지 전문

개인별 맞춤 용자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리파이낸싱/캐쉬아웃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켈리선생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나 인간적하시고 진정한 능력자이신 켈리선생님의 도움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진행하던 론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첫집 장만의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담당 리얼터분이 연결시켜주신 분이 켈리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주시면서 저희 여건에 맞춰서 모든 서류 진행과정을 급행으로 처리해 주셨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날에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른 론 회사에서 계속 진행했다면 집 장만의 꿈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선생님을 알게 된 걸 커다란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행운이 많은 분들에게도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켈리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이번에 처음으로 제 집을 장만하게되었습니다. 그것은바로 우리 최은경씨때문입니다. 아마도 2년전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겠다고 했을때 저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준비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준비과정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준비 과정중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는 포기하려고 했을때 저희 손을 놓지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주어서 새로운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저희는 이렇게 좋은집을 가질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만약에 누가 물어 본다면 단연코 저는 이분이 최고중에 최고라고 장담합니다. 또한 제주변에 집을구매할 사람있다면 망설이지않고 최은경씨를 추천추천 합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집이든 새로운 사업장이든 ...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쁘시고 착해요 ㅋㅋㅋㅋ



최은경(Chris Choi)
Boston Premier Realty
Cell:781.690.4389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 컬럼리스트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Yang-tuan Dablu Boston Korean Church

성 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J6ZdT>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함께 대응합시다!

큰 변화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COVID의 형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고 있는 이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COVID 확산을 늦추겠다는 우리의 결심입니다. 잊지 않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며, 차례가 되었을 때 백신을 접종받는다면 바이러스를 함께 물리칠 수 있습니다.

cdc.gov/coronavirus 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표현의 자유 · 북한 인권 격론

초당적 기구 '톰랜토스 인권위' 화상 청문회...한국 인권 놓고 이례적 청문회, 전단법 비판적 인식 속출 예고...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열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위원회 공동의장인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 제시카 리 미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수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톰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가 전 세계 인권 옹호와 가치 확산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설치한 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북전단법에 관한 미 조야의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위원회가 과거 북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는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대북전

단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는 등 매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날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 북한으로 정보유입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과 함께 한국 정부, 국회의 대북전단법 추진을 둘러싼 찬반론 속에 미 조야의 부정적 인식이 좀더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온 상태다.

증인으로 나온 솔티 대표는 청문회에 앞서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을 위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탈북민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는 청문회 공고문에서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청문회가 열리는 4월 15일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일 총리교체 포함 개각...새 총리 김부겸

문 대통령은 총리와 함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다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4~5곳이 꼽힌다.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 위주의 승진인사가 유력시된다.

교체가 예상됐던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 총리의 사퇴로 총리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흥 부총리가 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이 마지

막 지상과제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일부 수석 및 비서관 교체도 개각과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각 → 청와대 비서관 개편 → 새 총리 지명'으로 이어지는 순차 교체 방안을 고려했으나, 쇄신 의지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같은 날 일괄교체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에서는 최재성 정부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고, 그 자리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창렬 사회수석을 포함한 일부 수석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윤 수석이 교체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또 인사라인, 민정라인, 홍보라인의 일부 인사들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29) 투자경비와 책 보글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한 푼 한 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부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산다. 그런데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Expenses)를 모르면서 하는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난 12년 동안 4배 이상 불어났다. 투자 돈 \$100,000이 \$400,000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것은 투자종목이나 시점을 잘 선택해서가 아니다. 미국 대기업 500개 회사(S&P 500 Index)의 수익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나의 투자 돈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게 부과되고 있는 투자경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의 돈이 줄어들지 않고 혹은 그동안 생활비로 사용했는데도 원금보다 적어지지 않았기에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만 투자했다면 투자한 돈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불

어나야 한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침체에 들어가면 투자비용은 끊임없이 부과되기에 투자손실은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뱅크드 창업자인 잭 보글(John Bogle)은 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미국 대부분 투자회사는 일반 고객에게 부끄러운(Shameful) 행위를 한다. 뮤추얼 펀드 회사가 부과하는 경비는 고객의 돈을 절도(Larcenous)하는 것과 같고 보험회사나 투자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Commission)는 노상강도(Like highway robbery)와 다름없다.” 라고 감히 말한다. 한 개인이 미국 전체 금융회사를 혹평하는 데는 확고한 신념과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경제학자인 펄 샘얼슨(Paul Samuelson)은 “뮤추얼 펀드 운용자나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함께 이익을 얻어야 한다(To make the mutual fund truly mutual.)”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개념을 기본으로 책 보글은 1976년 최초로 인덱스 펀드를 시작했다. 그 당시 주식전문가는 투자하는 회사를 평가해 보지 않고 무조건 500대 기업에 투자한

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40여 년 후 현재 인덱스 펀드에 투자된 돈이 미국 주식시장 전체에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펄 샘얼슨은 인덱스 펀드는 세계 최초의 바퀴(Wheel), 포도주와 치즈(Wine & Cheese), 알파벳(Alphabet), 구텐버그의 활자(Gutenberg printing)에 버금가는 혁신이라고 말한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도 미국 국민에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면 책 보글을 추천한다고 2017년 주주총회에서 발표했다.

책 보글은 모든 투자자의 비용 절감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물론 “주식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다(Beating the stock market)” 고 선전하는 금융회사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지를 통계로 보여준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월 스트리트 신문에 ‘지난 15년 통계에 의하면 뮤추얼 펀드 90%는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 떨어졌다(The secrets of Jack Bogle’s investment success,

Burton G. Malkiel, Jan. 17, 2019, WSJ)’ 고 언급했다.

인덱스 펀드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하라고 오랜 기간 언급했다. 투자할 때 ‘싼 것이 비지떡’ 이라는 속담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경비가 적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들 키우면서 바쁘게 생활하는 이민 생활과 투자에 대한 무지함을 이용하여 높은 수수료와 비싼 투자 경비가 있는 투자상품으로 유혹한다. 투자가 안전하며 수익이 높다고 말하는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전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듣기에 너무 좋은 말기에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한다. 세월이 지난 후 투자 돈이 늘어나지 않음을 인식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제대로 하는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숨어있는 비용 등을 발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투자하기 전 모든 경비 특히 숨어있는 투자 경비를 재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0세 풍월주風月主 예원공禮元公(5)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염장공은 공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첩에게 말하기를 “예원은 비록 어리나 의리가 있다. 너희들은 나를 강요하여 체면을 잃게 하지 말라” 했다. 첩들은 예원공이 어머니에게 효성스러운 것을 알고 뇌물로 공의 어머니인 만룡낭주萬龍娘主에게 잘 보이려 했다.

만룡 또한 모두 어루만지고 순종케 하는데 마음을 씀이 실로 많았다. 만룡은 평소 미실의 딸 난야공주蘭若宮主와 잘 지냈다. 그 딸 우야공주雨若公主는 진평제眞平帝의 소생인데, 만룡은 공에게 아내로 맞을 것을 명했다. 공 또한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서로 화합한 것이 마치 아교나 옷으로 붙여 놓은 것 같아서 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염장공이 그 딸을 첩으로 삼아주기를 너무 절실히 원했으므로 서로 사이가 나빠질까 염려하여 만룡이 취하기를 권했고, 우야 또한 권했다. 공은 부득이 염장공의 딸 찰기察己를 첩으로 삼았다. 곧 가야 낭두 찰인察忍의 딸의 소생이다. 만룡이 그 예의 바른 태도를 보고... 정했다.]

김예원이 20세 풍월주로 재임하면서 김선품을 부제로 임용하였다. 김선품은 진흥왕의 손자이다. 진흥왕은 사도왕후와 함께 아들 셋을 낳았는데 장남은 동륜이고, 차남은 제25대 진지왕, 삼남은 구륜(仇輪)이다.331)

선품은 구륜의 아들이다. 미실은 늙어서도 보명공주(진흥왕의 후궁)와 함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평왕의 좌우후左右后로 왕에게 색도色道를 하였다. 그와중에 딸 보화공주를 낳았는데 그녀가 구륜공과 혼인하여 선품을 낳았는데 그녀가 구륜공과 혼인하여 선품을

을 낳았다. 선품이 예원의 누이 보룡(보리공의 적녀)과 혼인하여 딸 자의왕후, 운명, 야명과 아들 김순원을 낳았다.332). 한편 구륜은 첫째 부인 반야공주(진흥왕과 미실의 딸)와 아들 수품을 낳았고, 수품은 24세 풍월주 천광공天光公을 낳았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에게서 아들 작진을 낳았는데 그가 원선(아자개를 낳았다. 아자개는 견훤의 아버지이다. 그런데 선품이 아자개의 할아버지가 되기에는 시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결국 작진과 아자개 사이에 5-7대의 가계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아자개는 이씨로 견훤은 견씨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331) 장남 동륜은 572년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공주의 치맛폭을 풀려고 월담했다가 개에게 물려서 ‘개 죽음’ 을 당했고 이로 인해 차남 사륜이 태자가 되어 진흥왕을 이어 제25대 진지왕이 되었다. 하지만 579년 어머니 사도왕후와 미실 그리고 세종과 노리부의 세력에 의해 정사政事는 안보고 정사情事만 한다는 황음무도한 왕이라며 폐위되었다(삼국유사에 전하는 ‘도화녀와의 사랑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조금 각색했을 개연성이 크다). 삼남 구륜은 견훤의 조상이라고 전하는데 신빙성이 없다.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 (이제가기)의 내용을 참고했다는 기록은 “신라 진흥왕에게는 백용부인 사도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인 구륜공이 선품공을 낳았고 그 아들인 작진이 왕교파리라는 여인과 혼

인하여 각각 원선을 낳으니 바로 아자개라고 한다” 라고 한다. 구륜이 아자개의 증조부라는 내용이다. 즉 진흥왕-구륜-선품-작진-원선(아자개)-견훤으로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인데, 진흥왕은 576년에 죽었고, 아자개는 900년경 활동한 인물로 300년이나 남게 시대 차이가 나니, 고급의 인간 평균 수명상 아자개가 진흥왕의 현손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면 김선품의 딸 자의왕후가 제30대 왕인 문무왕(김법민, 626~681년)의 왕후이고, 또한 김선품의 외손자인 제31대 신문왕이 661년에 태어나서 692년에 죽었다. 즉 신문왕 김정명金政明과 사촌뻘로 동시대에 살아야만 했던 아자개는 생몰년이 미상이지만 그의 아들 견훤은 936년 9월 27일에 사망했다. 이로 봐서 아자개와 김선품 사이에 작진(아자개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5-7세대가 더 있지 않는 한 견훤은 김구륜(진흥왕의 삼남)의 현손이 아니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332) 자의왕후慈儀王后는 제30대 문무왕의 왕비이며 제31대 신문왕의 어머니이다. 운명雲明은 28대 풍월주 김오기와 혼인하여 화랑세기의 저자 김대문을 낳았다. 야명野明은 문무왕 김법민의 후궁이 되었고, 김순원은 성덕왕과 효성왕의 장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로스쿨' 김명민 "추리하는 과정 쏠쏠할 작품"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로스쿨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법률 드라마가 온다.

JTBC는 14일 새 수목극 '로스쿨'을 선보인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 대미문의 사건에 얽히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다.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의 깨닫는 과정이 극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로스쿨'은 영화 '조선명탐정' 시리즈에서 함께했던 배우 김명민(48)과 김석윤 감독이 4년 만에, 영화가 아닌 드라마로 재회하게 된 작품이라 관심을 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 출신의 형법 교수 양종훈 역을 맡은 김명민은 이날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법률 드라마이면서 캠퍼스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법률의 내용을 다루며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도 다룬다"며 "보통 미스터리극을 보면 주인공 몇 명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우리 드라마는 인물 모두가 교수와 함께해나가는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리하는 과정이 쏠쏠할 것"이라며 "첫 회에 등장하는 살인 사건과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김 감독과 재회한 데 대해서는 "'로스쿨'은 김석윤에 의한, 김석윤을 위한, 김석윤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감독님도 할지 안 할지 의사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니었다. 소재가 참신하고 이런 작품대 한국에 없었다 싶었고, 할 사람은 단 한 명 김석윤밖에 없다 싶었다"고 호응을 자랑했다.

김 감독도 "김명민 배우와는 호흡을 워낙 많이 같이해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뭘 원하고 뭘 하려는지 안다. 시청자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 '왜 김명민인지' 대부분 느끼실 것 같다"고 팀워크에 자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논리적이고 속도감



있는 어법을 쓸 거로 생각했는데 양종훈의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주교받는 대사의) 랠리가 빠르게 가야 했고, 순간의 긴장을 한 화면에 잘 담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작품에는 김범, 류혜영, 이정

등도 출연한다. 김범은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1학년 '원톱' 한준휘를, 류혜영은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운 좋게 로스쿨에 입학한 강술A로, 이정은 판사 출신의 민법 교수 김은숙으로 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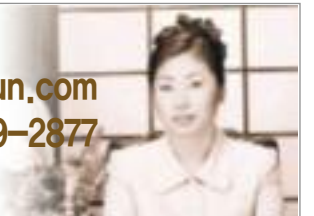
김범은 "그동안 구미호, 연쇄 살

인마, 천사 등 사람이 아닌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인간적인 맛을 지닌 '플레이인 요거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류혜영은 "감정의 폭도 크고 성장의 폭도 큰 강술A를 잘 표현해보겠다"고 했다.

4월 18일 - 4월 2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관대하게 용서를</p> <p>●운수: 모든 일과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맡겨 보세요. ●금전: 뜻하지 않았던 지출로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빨리 털어버리도록 하세요. ●애정: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헤어지고 아니면 관대하게 용서해주도록 하세요.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8, 23일 기일. 19, 20일 주의.</p>	<p>소띠 찬스가 왔으니</p> <p>●운수: 새로운 각오로 능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나 직장은 과감히 청산하는 용기가 있어야 새 길이 열립니다. ●금전: 찬스가 왔으니 꼭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뛰는 만큼 금전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따릅니다. ●애정: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도 끝나고 맙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2일 기일. 20, 24일 주의.</p>	<p>범띠 소문난 잔치에</p> <p>●운수: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미스런 일의 연루가 되거나 괜한 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는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을 것입니다. ●애정: 부부관계나 애정관계에 빨간 경고 신호가 들어왔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0, 23일 기일. 18, 21일 주의.</p>
<p>토끼띠 행복한 사랑을 느끼는</p> <p>●운수: 무엇인지 하고자하는 의욕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충만해집니다. ●금전: 재물이 한 아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분주한 가운데 이윤과 이익이 골질로 상승하겠습니다. ●애정: 성숙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주입니다. 서로의 이상과 감정의 일치로 행복한 사랑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0, 21일 기일. 19, 22일 주의.</p>	<p>용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p> <p>●운수: 여느 때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의 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손해 보거나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조심하고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애정: 누군가가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줄길 바랄 정도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의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8, 22일 기일. 20, 23일 주의.</p>	<p>뱀띠 양호한 편으로</p> <p>●운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된 것이 더 다행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전: 금전운은 양호한 편으로 자금 회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정: 가장 바람직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 현실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남에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9, 23일 기일. 21, 24일 주의.</p>
<p>말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p> <p>●운수: 가만히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은 무리하거나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집니다. ●금전: 방심한 사이에 엄청난 손해를 보기 쉬우니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애정: 가족의 화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커지면 남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4일 기일. 19, 22일 주의.</p>	<p>양띠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는</p> <p>●운수: 시간은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가와 일,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줄 것입니다. 나갔던 돈이나 그동안 받지 못해서 고심하던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애정: 새로이 시작하는 사랑이나 갑자기 고백을 받은 사랑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1일 기일. 20, 23일 주의.</p>	<p>원숭이띠 마음에 위안이</p> <p>●운수: 신다는 것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마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외로 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 융통성을 보이세요. 너무 실리를 앞세우면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애정: 늘 지켜주는 상대가 가까이 있으니 마음에 위안이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9, 22일 기일. 21, 24일 주의.</p>
<p>닭띠 감정조절에 신경 써야</p> <p>●운수: 감정조절을 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갑자기 그만 둘 우려가 있습니다. ●금전: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지기 쉽습니다.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애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서 쓸데없는 상상이나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8, 23일 기일. 22, 24일 주의.</p>	<p>개띠 좋은 결과가</p> <p>●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금전: 거래나 판매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저축했다고 생각하면 든든할 것입니다. ●애정: 상대를 바로잡으려 해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4일 기일. 22, 23일 주의.</p>	<p>돼지띠 한번 생각해 보아야</p> <p>●운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에 더 나아질 것은 무엇이고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지출할 일이 생기겠습니다. ●애정: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다른 생각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2, 23일 기일. 21, 24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3/19
케임브리지 한국 식당
주방 및 스시하실 분 구합니다.
T. 617-544-7016 (문자 혹은 메세지 남겨주세요)

12/6
아리수 코리아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있지, 박진영이 만든 '마.피.아. 인 더 모닝'으로 30일 컴백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그룹 있지(ITZY)가 소속사 수장 박진영이 만든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새 앨범을 전 세계 동시 발매하며 컴백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있지가 오는 30일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 0시) 네 번째 미니 앨범 '게스 후'(GUESS WHO)를 발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작사·작곡·편곡한 '마.피.아. 인 더 모닝'(In the morning)을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JYP는 박진영이 이번 신곡의 악기 세션과 보컬 디렉팅까지 전방위로 담당하며 정성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스타 작곡가 심은지와 JQ가 만든 '소리 낮 소리'를 비롯해 있지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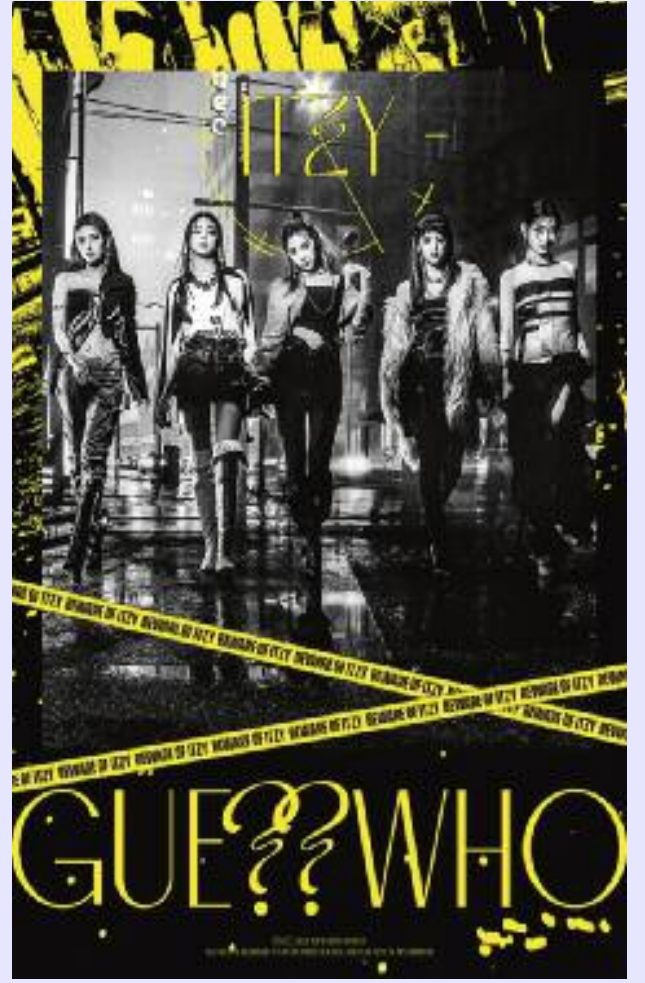
곡 '낮 사이'를 작업한 코비가 작사·작곡한 '키딩 미', 자라 리슨·리틀 믹스 등 세계적 아티스트와 협업한 알렉산더 파블리치 등 글로벌 작곡진이 참여한 '슛!'이 수록됐다.

있지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새 앨범 콘셉트 사진을 통해 더 강렬해진 이미지 변신을 예고했다. 당당한 포즈로 밤거리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흑백 사진에 담겼다.

대표적인 4세대 걸그룹으로 꼽히는 있지는 데뷔 이래 '달라달라', '아이씨', '워너비'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지난 1월에는 대표곡을 영어 버전으로 편곡해 실은 영어 싱글 '낮 사이'를 발표하며 미국 음악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rambo@yna.co.kr



올해엔 시상자로...봉준호, 아카데미상 영광의 무대 다시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는 오스카상 무대에 시상자로 다시 오른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등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연출진은 1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시상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고 미국 연예 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 등이 보도했다.

1차로 발표된 시상자 15명에는 지난해 제92회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작품, 감독, 각본, 국제영화상을 휩쓴 봉 감독이 올랐다.

영화 전문매체 인디와이어는 "역사를 만든 봉 감독이 2021년 오스카상에 복귀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 데드라인은 "봉 감독이 아마도 감독상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jamin74@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환경세미나'에 참석하고...

UMW(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주최로 지난 4월 10일(토) 오전 9:30~11:30까지 온라인 '화상 세미나'가 있었다. 강사로는 전국연합여성교회 김명례 총무의 '생명 살리기'란 주제로 환경세미나가 열렸는데 참석 인원은 26명 정도가 되었다. 참으로 유익하고 삶에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 귀한 환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것들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일들이 많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질병으로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 밝혀진 것이 약 80가지나 된다고 한다. 깊숙한 생태계에 숨어있던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겨서 AIDS, SARS, MERS, Ebola, Zika virus, COVID-19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들을 좁은 우리에 가두어 키우다가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돼지독감, 돼지열병을 유발하며, 소에게 병들어 죽은 가축의 고기를 먹이

다가 광우병(mad cow disease) 등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너무도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삶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요즘 미국 내에서도 기후재난으로 허리케인, 산불, 폭설 등을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던가. 이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재해를 겪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멀리 있다고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며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 되어가는 지구의 일을 생각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다. 전 육지의 1/3이 사막이 아니면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83%의 사막이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사막이라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해양어족 과멸(90% 이상 감소)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048년까지는 모든 어족이 과멸될 위기에 있다는 보고서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적조와 물고기의 폐죽음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았을

것이다. 물의 오염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매년 500만 명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사망하며, 23억 명이 수인성 질환을 겪으며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통해 알았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생존이 가능할까?

"지구상에서 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4년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벌이 없으면, 꽃가루 수정이 안 되고, 동물이 사라지고, 인류도 멸망한다." __아인슈타인

꿀벌이 죽는 이유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 꿀벌들이 지구온난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체 수 감소에 대해 농약 사용, 기생충, 서식지 감소 등이 주원인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와 인류의 생태계의 심각성을 마주하며 무엇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요즘 COVID-19로 인해 마스크와 비닐(고무)장갑이 필수품이 되었다. 이 많은 양의 것들이 어떻게 처리될까를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네 길을 걷다가 유심히 바라보면 여기저기 쓰다가 버려진 마스크와 고무장갑이 널브러져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줍는 일보다는 버리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식적으로 옮겨져야 한다.

'작은 실천 큰 효과'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인 것이다. 가정에서 자주 쓰는 Water bottle 대신 정수기 사용으로 개인 물병을 지참하도록 하고, Paper towel 대신 마른 천의 행주를 사용한다면 좋을 일이다. 이미 이런 일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작은 실천이 오염된 환경을 위해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가정에서 철저히 Recycles(분리수거)을 실천하며 꾸준히 온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듯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노인성 老人星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백세百歲면 장수長壽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100살이 더 이상 장수가 아닌바, 20여년은 더 살수 있다. 일본에서의 이야기이다. 덕분에 일본노년층은 이미 준비에 들어갔고, 씩씩이를 즐긴다고 했다. 이젠 불로초不老草를 구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진시황은 애써 불로초를 찾으려

했다던가. 한국 제주도로 사람을 파견했다고도 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었던 거다. 하지만 불로초는 찾지 못했는데, 노인성老人星 (Canopus)이란 별만 봤다던가.

노인성老人星이라. 늙은이 별이라 하면 멍멍한데, 이름은 별스럽다. 별은 지구와 수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의 나이는 그닥 많지 않은 모양이다. 보스톤에선 볼 수 없고, 남방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별이라 덧붙였다.

노익장老益壯이란 말이 떠올랐다. 노당익장老當益壯에서 따온 말이라 했다. 윗기면 아래와 같다.

'대장부 뜻을 품었으면 궁할 수록 더욱 굳세고 늙을 수록 기백은 넘쳐야 한다. '

매년 봄이면 보스톤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참가자가 수천을 넘는

데, 노장년이라고 빠질수는 없다. 줄곧 예순이 넘는 선수들도 출전했다는 소식도 듣는다. 완주라는 게 말은 쉽지만, 42킬로가 넘으니 백리를 뛰며 달리는 거다. 정녕 노익장이라 해야 할터.

래리 콜이란 노인분이 있다. 그는 2012년과 2017년 두번을 보스톤 마라톤에 출전했다. 당시 연세가 78세요, 83세일 적이다. 6시간만에 완주했다만, 기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단지, 그의 기백과 건강과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진정한 노익장이고 빛나는 별이다.

백신주사도 이젠 나이에 따라

맞는다고 했다. 경로우대되는 거다. 주사를 맞으면 노인성같이 봐야 질 수있을까. 바이러스 걱정은 덜할 게다. 하지만 백신이 불로초는 아니다.

올해 보스톤마라톤은 가을에 열리는 모양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창세기 44:20)

첨언) 그림은 인터넷 사진을 보고 그렸다. 킥보드를 타는 할머니 모습이 경쾌해 보인다.






한국의 소중한 영토, 독도 이야기

국제법적 · 역사적 시각에서

ZOOM Meeting
 Meeting ID: 884 6735 2903
 Passcode: dokdo
 5월 2일 일요일 8pm(EDT)



이근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UNESCO 문화재반환 정부간위원회 의장
 (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현) 아시아국제법학회 부회장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매사추세츠한인회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후원: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란?



이번 주 휴람의료정보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 성 쇼크(anaphylactic shock)'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 재우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나필락시스가 뭐가요?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중증의 전격적인 급성 과민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는 크게 음식물, 약물, 곤충의 독 등이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5~20%에 해당된다. 원인물질 투여 후 즉시 또는 수십 분 내에 바로 이상 증상이 발생하며, 전신 두드러기, 혈관부종, 복통, 호흡곤란, 기침, 어지러움, 혈압 감소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하지만 이상 증상이 발생한다고 모두 아나필락시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피부 증상과 함께 혈압 저하에 따른 증상과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의

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빨리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후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나필락시스는 환자에게 원인이 되었던 물질 또는 이와 교차 반응이 있는 물질에 재차 노출되게 되면 같은 반응 또는 더 심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알레르기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평소 특정 약이나, 음식물을 먹고 나서 피부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혈관 부종이 발생한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원인물질을 확인하고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과민반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환자들이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나, 시험적으로 먹어보는 것은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민반응에 재차 노출되는 경우 아나필락시스로까지 진행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원인 물질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백신, 알레르기가 있어도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요?

치명적 백신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는 예측이 어렵다. 다만 가벼운 알레르기가 있다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피할 필요는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인구 백만 명당 4.7건(994만 접종 중 47명), 모더나 접종 후 인구 백만 명당 2.5건(994만 접종 중 19명)의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영국에서는 화이자 접종 후 인구 백만 명당 19.7건(약 660만 접종 중 130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인구 백만 명당 10건(약 300만 접종 중 30건) 발생을 보고하고 있다. 이 같은 증상은 주로 30~40대 여성에게서 발생하였고, 접종에서 증상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10분이었으며, 과거 약물이나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 기왕력이 있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과거 음식물과 약물에 대한 중증의 과민반응력이 있다면, 백신 투여 후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에서는 백신 주사 후 일반적인 관찰 시간보다 좀더 길게 관찰하는 것이 좋으며, 두드러기, 가려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에 응급실을 내원하여 조치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코로나 1차 백신 접종 후 광범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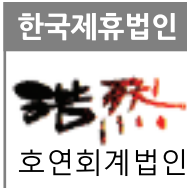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2차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1차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였다면, 2차 백신은 금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이 다른 백신을 사용했을 때 경험한 이상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감염을 100% 예방할 수는 없으나 국내 도입된 백신 모두 증상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란?”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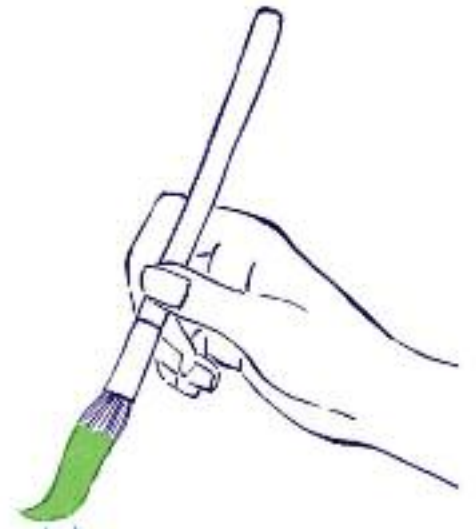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공모전



- ▶ **기간** : 2021. 4. 15. ~ 5. 19.
- ▶ **주제** : △한반도 평화·통일, △남과북 최고의 순간, △평화와 통일미래, △DMZ와 평화, 중 택1

- ▶ **응모분야** : 그림(1점)
- ▶ **응모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응모일 기준 재학생, 현지 외국인 학생 포함

▶ 응모방법

- 그림작품 및 작품소개(한글 200자 내외, 영문 70단어 내외) 이메일 제출
- 제출처 : bostonnuac2020@gmail.com(보스톤협의회)
- 디지털파일 형식
 - * 그림 : JPG, JPEG, PNG 파일(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 / 직접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활용하여 그리는 방식 모두 가능)
- 성명, 소속학교,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반드시 명기 후 제출
- 입상작 저작물의 모든 권한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귀속 (온라인 작품전시관 게재 예정)
- 행사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 시상내역

보스톤협의회상(예선) ※ 2021. 5. 28. 시상 예정

상명	수상자	상금
협의회장상	1명	\$300
협의회 우수상	3명	각 \$200
협의회 장려상	5명	각 \$100

* 보스톤협의회 예선대회 1등(협의회장상) 수상자는 전세계 43개 협의회가 참여하는 종합 결선대회 진출.

종합 결선대회 ※ 2021. 6. 30. 시상 예정

상명	수상자	상금
대상 의장(대통령)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50만원
우수상	3명	각 30만원
장려상	5명	각 20만원

※ 시상내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및 문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전화: 617-780-6521 준비위원장 신영
이메일: bostonnuac2020@gmail.com



2021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하기 정치 인턴십 공모

시민협회가 보스톤 뉴잉글랜드지역 차세대 한인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위한 <2021년 하기 정치 인턴십>을 공모합니다. 선발된 인턴은 현 보스톤 시의원이며 시장선거에 도전하는 "미셸 우", 한국계 매사츄세츠 주 하원위원 "마리아 로빈슨", 주 하원의원 "태키 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시행합니다.

선발된 대학생 인턴에게는 시민협회가 \$2,000, 그리고 고등학생 \$500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인턴십 시작과 종료일은 시의원과 주 하원의원 사무실과 논의하여 각 인턴의 개인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인턴십 종료후에 각 인턴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인턴십 에세이가 시민협회 저널에 게재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 지원방법과 절차:

- 1) 시민협회를 통하여 2021년 4월 18일까지 신청
- 2) 원하는 공공사무실에 지원하여 최종 선발

• 지원자격:

- 1)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2) 뉴잉글랜드 거주 혹은 뉴잉글랜드 소재 대학교(혹은 고등학교) 재학생
- 3) 학교평점이 3.0 (4.0기준) 이상인자
- 4) 성적 증명서
- 5) 리더십과 탁월한 의사소통을 증빙하는 추천서

시민협회 정치 인턴십 신청과 인턴십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민협회 부회장 허 훈 (HOON HEO)

전화번호: (413) 204-9569

시민협회 사무총장 소피 박 (SOPHIE PARK)

이메일: newenglandkacl@gmail.com

www.kacl-ne.org

www.hitrons.com

Mothers Day 스페셜 프로모션
행사기간: 5/9/2021까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BODYFRIEND PHARAOH II

Happy Mothers day

Bodyfriend & Fujiiryoki Massage Chair Special Sale



BODYFRIEND PHANTOM II



BODYFRIEND PALACE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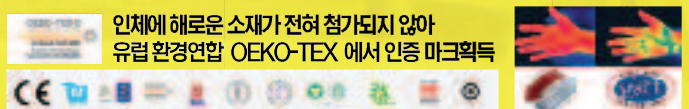
FUJIIRYOKI FJ8000



MAGNISTRETCH TECHNOLOGY
STRETCHES AND DECOMPRESSES YOUR SPINE



척추 전문 의료진이 개발하여 잠자면서 스트레칭 되는
기능으로 목과 허리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
미국 카이로 프랙터 협회에 인증받은 유일한 매트리스!



Appointment Only
예약전화
781.862.6867

HITRONS™
MASSACHUSETTS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www.hitrons.com



* 월무이자 특별스페셜은 Synchrony Financial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신용확인이 필요하며 Synchrony Financial 적격고객에게만 제공됩니다. 모든 고객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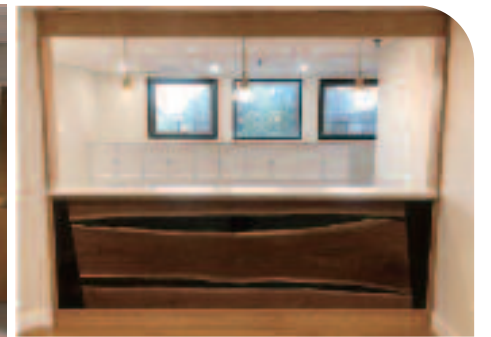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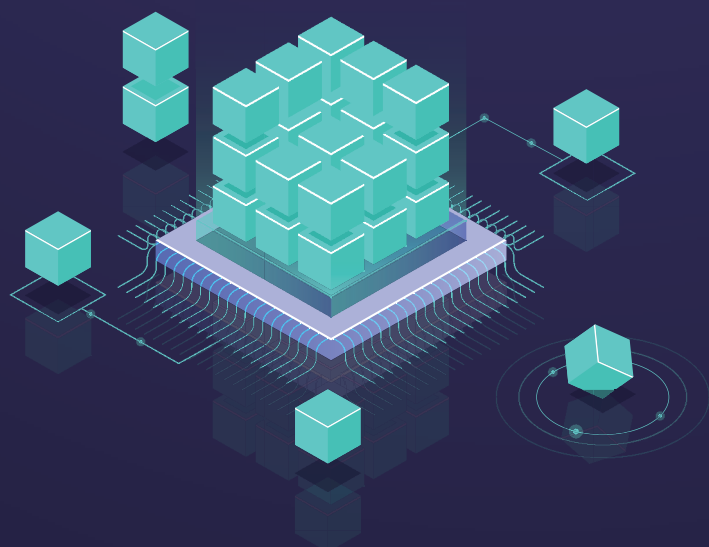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PHOENIX BUSINESS COMPUTING

Data driven Workflow Management Solutions from Experts
데이터를 사용한 업무 관리 프로그램 전문회사



Phoenix Business Computing, LLC has been building, supporting, and consulting hundreds database related projects for top enterprises and mid-size companies in US in the past 20 years.

Please contact us if you have:

- A project that has been stalled due to:
 - Not clearly defined scope and no project leadership support
 - Budget constraints (expensive to hire outside vendors)
 - Lack of internal database process experts or no internal support staffs
- An immediate need to support:
 - Existing applications, enhancements, or adding new feature
 - Sharing data from various sources and different data formats
 - Automation of data manipulation, integration, and delivery
 - Dynamic reports and timely aggregated data summarizations.
 - Scheduled jobs
- A new project that will automate your workflow management process by sharing data and decisions among people involved.

No charges if no values delivered to your company

피닉스 비즈니스 컨설팅은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백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젝트를 컨설팅에서부터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업무지원까지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프로젝트가 진전이 없는 경우
 - 업무 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리더십의 지원도 없을 때
 - 외부 전문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고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
 - 사내 데이터베이스전문가 또는 지원 직원이 없을 때
2. 당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새로운 기능을 더하거나 보강할 때
 - 다양한 소스와 다른 데이터 포맷 상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 데이터 조정, 통합 그리고 발송을 자동화 하고자 할 때
 - 빠른 보고와 필요한 시기에 집계된 데이터 요약
 - 예정된 작업들
3. 데이터 공유와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작업 관리 절차를 자동화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귀하의 회사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Lead Architecture: Taewon Jin
taewonjin@phoenixbc.com
603. 205. 6679